

최진석 교수 광주서 '장자' 강연

3월부터 비움박물관 '장자를 통해 꿈꾸는 미래' 18강좌 선착순 100명 모집...하반기에도 강의 진행 예정

'부질없다, 부질없다. 정해진 모든 것/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모든 언어들/ 모든 생각들/백설의 새 바탕에 새 이야기 새로 쓰세/ 새 세상 여는 일 말고 그 무엇 무거우라/새 말 새 몸짓으로 새 세상 열여 보세'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해 쓴 '새 말, 새 몸짓'이라는 글을 통해 '실천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 교수가 광주에서 '장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는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8강으로 이루어진다. 단발적인 강의를 벗어나 '장자'의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장자를 통해 꿈꾸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3월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1일까지 매주 일요일(오후 3시~5시) 광주시 동구 전남영고 맞

은편 비움박물관에서 열린다.

광주일보에 2년에 걸쳐 '노장적(老莊的) 생각'을 연재하기도 한 최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장자의 사상을 통해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정기 강좌를 진행해왔다.

5월에는 '탁월한 삶, 탁월한 사유'를 주제로 '인간의 독립', '인간, 신으로부터 벗어난 후 신이 되어가는 과정' 등 5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인간적인 삶'을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는 '확장', '독립', '모험', '추상', '배움', '감동'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다.

이번 장자 강의 역시 기존 강의와 마찬가지로 최교수를 직접 찾아가 인연을 맺었던 '참된 자아 참된 세상 참 배움터'가 주 최한다.



장자



최진석 교수

강의를 마련한 정경미 대표는 "광주에서 진행된 강의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아와 강의를 들었는데 장자 강의는 최 교수님이 먼저 제안하셨다"며 "우선 상반기에 18강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상황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착순 100명. 수강료 15만원. 문의 010-9601-818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산맥 등단 지연 시인 '건너와 빈칸으로' 펴내

"날리는 눈 앉은 자리마다 찾아 있다. 눈 한 잎 감정에 내가 잠시 스며들었던 기록. 다시 빈칸으로."

2013 '시산맥' 신인상으로 등단했던 지연 시인이 신작 시집 '건너와 빈칸으로' (실천문학사)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편은 상상력과 언어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 표제시 '건너와 빈칸으로'는 목욕의 발화를 통해 타자화로 인한 자기 타생의 계기를 능숙하게 포착한다.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탄생이라 명명할 때, 시인에게 그 존재는 이전에 없던 것이기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시 '비상구'는 "불이 꺼지는 순간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 '바삭'거리는 소



리다. 화자는 불이 꺼지는 순간 시간적 존재에서 정각적 존재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시인인 문신 문화평론가는 "시가 타인이 되는 일은 어떤 것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시적 지향과 무관치 않다"고 평한다.

한편 전북 임실 출신인 지연 시인은 시산맥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북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

/박성권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 공모

다음달 14~15일 접수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운영단체 공모는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주말예술배움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 2개 사업이다.

'주말예술배움터'는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4억원이 지원되며 공모는 일반유형과 인큐베이팅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유형은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하며 2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유형은 신규단체 발굴 지원으로 교육워크숍과 컨설팅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단체별 5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한다.

'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은 지역 자원의 결집·실현·성장을 이루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유형 단체만 모집한다. 지원예산은 3억원이다. 일반유형은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 10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월 14일부터 15일(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이메일(grarte@hanmail.net)로 서류제출 후 방문접수 마감하며 최종접수 완료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5763, 062-670-5764.

/박성권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리랑카 이야기 '달아난 수염' 만난다

2월 2~3일 ACC 어린이문화원

스리랑카의 이야기를 풀어낸 공연 '달아난 수염'이 어린이 관객을 다시 찾는다. 극단 무릎배개는 오는 2월2~3일 오전 11시~오후 3시 공연 '달아난 수염'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ACC 창작작 어린이공연으로 만들어진 '달아난 수염'은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자꾸 자라나는 말쑥꾸러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와 소녀가 겪는 이야기를 그린 다. 신체놀이와 가면, 인형을 활용해 말쑥

꾸러기 수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림자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참여연극 '애벌레의 방', '바람이 불어, 초록색 모자와 '거기 누구요', '아 글썸, 진짜?!' 등을 만든 극단 무릎배개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극단으로 어린이들이 엄마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체 놀이와 오브제, 가면 등 여러 가지 연극적 요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색다른 시도를 하는 극단이다.

조경향 감독이 연출을 맡고 연리목 음



악감독, 박해은 무대감독이 참여하고 성경철·고민정·백성은씨가 출연한다. 설 연휴를 맞아 이날 공연은 50% 할인 한 관람료 5000원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촌아트팩토리서 즐기는 재즈브런치...30일 '손수연 퀴텟'

'7080 재즈 스토리' 주제

커피와 함께 재즈를 즐기는 '재즈브런치'가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커뮤니티 카페 '아트코빈'에서 열린다.

광산구 산업단지 '문화가 있는 날' 6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7080 재즈 스토리"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손수연을 중심으로 배진

혁(피아노)·전사무엘(베이스)·신지용(드럼)으로 구성된 4인조 재즈 밴드 '손수연 퀴텟'이 오른다. 이들은 '매일 그대와', '클로스 투 유', '유 어 마이 선사인', '스윙 베이비', '서니', '올 더 펑크 유 아' 등 7080 세대의 향수를 일으키는 가요·팝송·재즈음 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관람료 5000원을 내면 공연 관람 뒤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62-960-36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컬 손수연 베이스 전사무엘 피아노 배진혁 드럼 신지용

광주예총 '예술광주' 가을·겨울호 나와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발간하는 잡지 '예술광주' 가을·겨울호(통권 63호·사진)가 나왔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7, 8, 9대에 걸쳐 12년 연임한 최규철 회장이 이끈 예총사업을 총망라한 '12년, 예총사업을 돌아보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에서는 강경숙 작가의 '한인 디아스포라-고행의 수레바퀴'를 주제로 글·사진이 실렸고 '창작글방'란은 정숙인의 칼럼 '행복의 온도', 박영덕의 글과 양산 선상대의 사진이 어우러진 수필 '풍경한점', 강은희의 수필 '날개'가 꾸렸다.

조수용 작가는 '텍스트', '콘텍스트',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인문학적 관점에

서 바라본 '인문학 용어 풀이'를 선보였다.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홍은 미국 뉴욕에서의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쓴 '세계 지성이 본 광주'를 내놓았고 이

동희 작가의 건축사진도 잡지를 채웠다. 또한 '아트페스티벌', '시민예술대학', '오픈 스튜디오', '달빛동맹',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등 예총의 굵직한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예총 이모저모'를 마련했다. 문의 062-528-92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홍문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퀴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